

윤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재도약...3대 개혁에 방점

20분 분량 원고 집무실서 낭독
루스벨트 '노변정담' 콘셉트
보유 알려진 기자회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 발표할 신년사의 키워드는 '재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각 수석실에서 신년사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고했고, 이를 취합해 초안을 완성한 단계"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분량은 20분 안팎으로 전해졌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3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신년사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지향해왔지만,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민간 지원 역할도 중시하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을 통한 경제 활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재계와 소통도 강화하는 흐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신년 행사에 불참한 데 반해 윤 대통령이 다른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도 거듭 부각할 전망이다. 2023년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배경에는 그것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요즘 업무 보고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수출과 스타트업 코리아"라며 "3대 개혁은 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노변정담'과 같은 콘셉트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냈던 것처럼, 경기 한파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을 모아달라 호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새로운 의제를 던지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국민 공감을 자아내는 연설이 될 것"이라며 "1년에 한 번 하는 노변정담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때 보류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회견도 별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별 업무보고와 해의 순방으로 1월 중이 어렵다면 이후 연초에 '신춘' 회견을 여는 방안이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힘 전대 선관위 구성 완료...위원장 유흥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선관위는 총 11명으로, 위원장은 4선 의원을 지낸 유흥수 상임고문이다. 부위원장은 김석기 사무총장이 각각 맡았다. 원내에서는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임태영 조직부총장, 초선인 배준영·장동혁·최형두 등 의원 5명이 선관위원을 맡게 됐다. 원내에서는 김경안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전 서남대 총장), 황상무 전 KBS 앵커, 함인경 법무법인 강합 대표변호사,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전 비대위원) 등 4명이 위원을 맡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선관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4%...2주째 제자리

NBS 조사...부정 평가 56%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엘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 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34%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수치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

가도 이전 조사와 같은 56%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28%, 정의당이 5%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4%포인트(p), 민주당은 2%p 각각 하락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48일만에 경기 화성서 검거

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에 은신해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해 수감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당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유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중형을 예상한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하는 등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다른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과 조카 등을 연달아 구속하면서 저인망식으로 수색해왔다. /연합뉴스

윤영찬, '대장동 자료 윤영찬 줬다고 들었다' 진술 남욱 고소

남욱 발언 카드뉴스 제작·배포자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8일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서 초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남욱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 씨는 기사를 통해 들었다고 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사자인 제가 단 한 번의 확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발언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고소 사실을 전했다. 윤 의원은 "거짓된 발언으로 제가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남 씨는 법정에서 한 경솔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재판에서 민간 사업자인 정영학 씨가 말한 '50억 클럽' 관련 녹취록 등 자료를 정 씨의 변호인이 윤 의원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즈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씨의 폭로 과정에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상임고문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쟁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대장동 의혹을 이 상임고문 측이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이 상임고문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남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카

드뉴스로 만든 제작자와 이를 유포한 불상의 인물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카드뉴스가 유포되면서 이 대표 측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에 대한 비판에 다소간 오류가 있어도 공인이 감당할 일로 여겨 인내했지만, 해당 카드뉴스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용납할 수 없는 멸칭과 모욕을 담았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추구한 언론의 자유와 건강한 소통을 위해 제가 닦은 상황도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혐오와 거짓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명예 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 무릎 |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